

▶ 달러/원 주간 전망

• 파월과 물가, 그리고 금통위... 레인지 달라질까

서울, 7월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통화정책 경로를 가능할 수 있는 경제지표와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어 글로벌 달러에 주로 영향 받으며 움직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65-1,395원이다.

미국 6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인하 기대에 더욱 힘을 실었다. 6월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이전 두달 수치가 크게 하향 조정되고 실업률은 4.1%로 3개월째 올랐다.

미국 금리선물시장에서 9월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77%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확인시켜 줄 물가지표가 발표된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대한 로이터 전망치는 전월비 0.1%(5월 포함)이다.

물가지표 발표에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의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한다. 물가지표와 파월 의장 발언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최근 연준 9월 금리인하론에 대한 대략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국채 입찰 결과도 챙겨야할 이벤트다.

글로벌 금리와 달러 및 증시가 단기 방향성을 굳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달러/원 거래 레인지가 한 단계 하향 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원화 변동성을 자극하는 주요인인 엔과 위안 약세 되돌림 정도도 관심이다. 이번 주중 중국도 물가지표를 발표한다.

국내 예정된 주요 이벤트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정책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지만 8월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수의견이 제시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미국에 앞서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원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글로벌 위험선호와 함께 국내 반도체 주식에 대한 외인들의 러브콜이 지속될지는 원화를 둘러싼 시장심리를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주간 세계 5대 이슈

⊙ 美 인플레이션 업데이트

목요일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준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를 형성할 것이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5월에 예상외로 변동이 없었던 CPI는 6월 중 0.1%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데이터에 따르면 또 다른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는 전년비 2.6%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수치였다.

이에 앞서 화요일 파월 의장은 의회 증언에 나선다. 그는 지난주 포르투갈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앞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美 은행 실적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서 높은 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미국 은행 수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JP모간체이스, 씨티그룹, 웰스파고는 12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미국 최대 대출 기관인 JP모간의 주당 순이익(EPS)은 4.69달러로 전년 동기 4.75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LSEG 추정치).뱅크오브아메리카의 EPS는 전년 동기 88센트에서 79센트로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씨티와 웰스파고의 EPS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업계 리더들이 투자 은행의 여건 개선을 언급한 이후 금리 경로에 대한 경영진의 논평이 주요 초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프랑스가 7일 총선 2차 투표를 실시했다.

마린 르펜의 극우 국민연합(RN) 또는 좌파 정부 하의 지출 증가에 대한 전망은 6월 시장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예상됐던 것보다 작은 승리를 거두면서 투자자들은 더 낙관적이 됐다. 집권을 막기 위한 정당 간 경쟁으로 인해 RN이 절대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독일 국채 대비 프랑스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직전주 2012년 이후 최고치인 85bp를 기록한 후 지난주 약 70bp로 떨어졌다.

그러나 과반을 차지하는 당이 없는 형의회가 되면 정책 마비로 인해 유럽연합의 징계 조치에 직면한 프랑스의 긴축 재정을 개선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는다.

⊙ 한국·뉴질랜드 금리 결정

투자자들은 올해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있다. 두 중앙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수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열리는 회의에

서 금리를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정책 결정권자들은 올해 또 한 번의 금리 인상 리스크까지 경고했고, 2025년 후반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기업 심리가 악화되는 한편 내수가 약화됨에 따라 올해 한 차례 인하가 빠르면 10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반영하는 등 더 낙관적이다.

한국은 물가가 통제되고 있다는 징후가 더욱 뚜렷해졌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여전히 4분기까지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연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금리 인하를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등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 하수의 세레

영국의 노동당은 집권 하자마자 하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수자원 규제 기관인 OFWAT는 수 년간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강으로 흘려보내온 수도회사들이 고객의 요금을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지 발표할 예정이다. 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런던과 그 주변에서 1600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150억파운드의 부채를 안고 있는 영국 최대의 수도회사 템즈워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신규 자본을 유치하지 못하면 국유화에 직면할 수 있다.

이 회사는 59%의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여론을 고려할 때 OFWAT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미 템즈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에 충분해야 할 것이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랠리 확대 기대 시험하는 어닝 시즌

뉴욕, 7월8일 (로이터) -

미국 증시 랠리가 엔비디아 등 대형주 이외의 부문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희망은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기술 관련 선두주자들의 이익을 따라잡기 시작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서 앞으로 몇 주간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S&P500지수는 2024년 들어 16% 상승했는데, 인공지능(AI) 기술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몇몇 대형주에 힘입은 결과다. BofA글로벌리서치 전략가들에 따르면 상반기 S&P500 종목 중 24% 만이 지수 상승률을 상회했으며, 이는 6개월 기준 1986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동일 가중 S&P500은 올해 4%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다. 2일 현재 S&P500 구성 종목의 약 40%가 올해 들어 하락했다.

금주 JP모간과 씨티그룹 등 주요 은행들의 12일 발표를 필두로 2분기 실적시즌이 시작된다. 투자자들은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매그니피센트7'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주목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소수의 대형주 약세로 지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폭이 좁은 랠리는 더 취약하다고 보지만,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확산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이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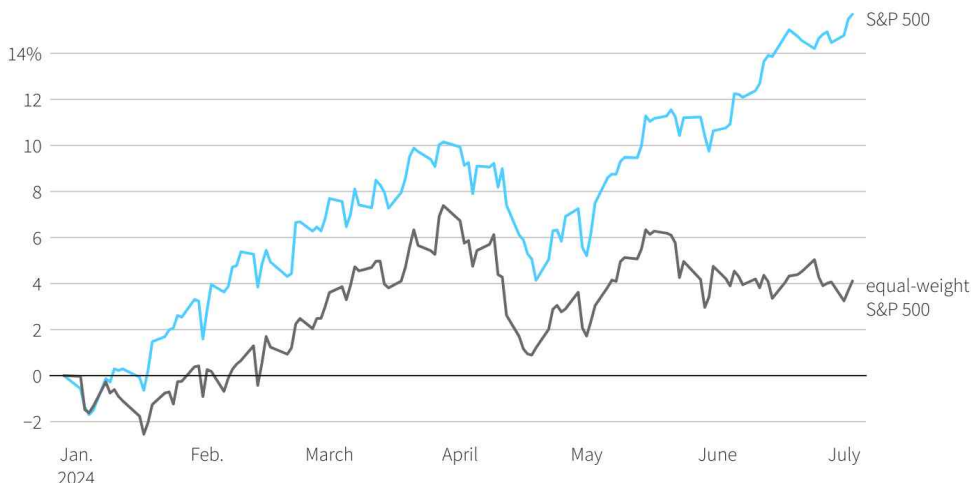
많은 투자자가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개선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주도주보다 더 적당한 밸류에이션으로 주식 거래가 촉진될 수 있다.

B라일리웰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 아트 호건은 "올해 랠리의 확산을 가져올 촉매제를 찾고 있다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P500지수는 예상 이익의 약 21배에 거래되고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제외하면 수치는 평균 16.5배로 떨어진다고 호건은 지적했다.

Leaving the average stock behind

The S&P 500 has outperformed the equal-weight version of the S&P 500, which is a proxy for the average stock



Source: LSEG | Graphic by Lewis Krauskopf

좁은 랠리의 또 다른 신호로, 매그니피센트7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정보기술 및 통신서비스 섹터는 올해 11개 S&P500 섹터 중 유일하게 전체 지수 상승률을 넘어섰다.

타지네르 딜론 LSEG 수석 리서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매그니피센트7의 1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한 반면 나머지 S&P 500 종목의 이익 증가율은 1.3%에 그쳤다.

LSEG에 따르면 2분기에는 매그니피센트7의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29.7% 증가하고 나머지 종목들의 이익이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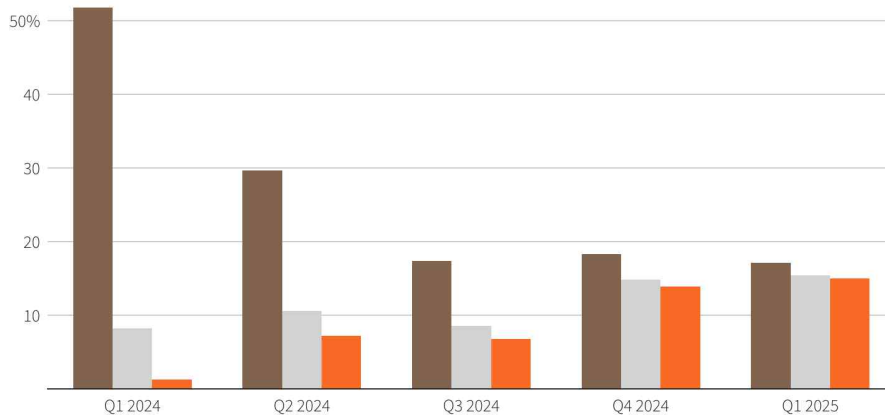
올해 후반에는 매그니피센트7의 이익 우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전년 대비 이익 성장률은 3분기에 17.4%, 4분기에 18.3%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종목들은 3분기 6.8%, 4분기 13.9%로 예상된다.

Narrowing the earnings gap

The huge earnings growth advantage that the megacap Magnificent 7 companies have held is expected to shrink in coming quarters

● Magnificent-7 ● S&P 500 ● S&P 500 Ex. Mag-7

Year-over-year change



Note: Data from Q2 2024 forward is estimated
Source: LSEG IBES data as of June 28 | Graphic by Lewis Krauskopf

노던트러스트웰스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인 케이티 닉슨은 "2024년에는 S&P의 거의 모든 섹터가 이익 성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I가 여전히 지배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다른 그룹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다코타웰스매니지먼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 로버트 파블릭은 소비자 지출 부진,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및 기타 우려스러운 경제 지표로 인해 이익 성장률이 기대에 부합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은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9일 의회 증언과 11일에는 월간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7월8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7월8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2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1:00)
- ⊙ KDI: KDI 경제동향(2024. 7) (12:00)
- ⊙ 금융감독원: 2024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12:00)

7월9일(화)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국회 업무보고 (11:00)

7월10일(수)

- ⊙ 통계청: 2024년 6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08:00)
- ⊙ 한국은행: 2024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4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2:00)

7월11일(목)

- ⊙ 관세청: 7월1~10일 수출입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금통위 본회의(통방) (09:00)
-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경제상황평가(2024.7월)
-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10:00)
-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 (11:10)

7월12일(금)

- ⊙ 기획재정부: 2024년 7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제29차 EMEAP 총재회의」 및 「제13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 참석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7월8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7월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5월	2,453.9B	2,050.5B
7월8일	17:30	유로존	셴틱스지수	7월	0.0	0.3
7월8일	23:00	미국	고용추이	6월		111.44
7월9일	04:00	미국	소비자신용	5월	10.00B	6.40B
7월9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6월		90.50
7월10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MM	6월	0.4%	0.7%
7월10일	10:30	중국	PPI YY	6월	-0.8%	-1.4%
7월10일	10:30	중국	CPI YY	6월	0.4%	0.3%
7월10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7월5일 주간		206.5
7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6월	6.8%	7.0%
7월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6월	2,200.0B	950.0B
7월10-17일		중국	FDI (YTD)	6월		-28.20%
7월11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5월	0.8%	-2.9%
7월11일	21:30	미국	CPI MM, SA	6월	0.1%	0.0%
7월11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1일 주간	240k	238k
7월12일	03:00	미국	연방예산	6월		-347.00B
7월12일	13:30	일본	산업생산 수정치 MM SA	5월		2.8%
7월12일	21:30	미국	PPI MM	6월	0.1%	-0.2%
7월12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7월	68.5	68.2
7월12일		중국	수출 YY	6월	8.0%	7.6%
7월12일		중국	수입 YY	6월	2.9%	1.8%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7월8일 (일)

- ⊙ 휴장국가: 말레이시아 등

7월9일 (화)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 출석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주최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10시15분)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주최 컨퍼런스 개최사 (10일 오전 2시30분)

7월10일 (수)

-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오전 11시)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 출석 (오후 11시)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준이 듣는다> 화상 행사 개최사 (11일 오전 3시30분)

7월11일 (목)

-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2024 호주 이코노미스트 컨퍼런스서 연설 (오전 8시30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NCUA 주최 행사 토론 참석 (12일 오전 0시30분)
- ⊙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리틀록 지역의회 행사 참석 (12일 오전 2시)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 - 美 민주당 지지자 3명 중 1명, “바이든, 후보 사퇴해야” - 로이터/입소스 조사

워싱턴, 7월3일 (로이터) -

미국 민주당 지지자 3명 중 1명은 지난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의 토론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선출직 가운데 트럼프와의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보다 나은 성적을 거둔 유력 후보는 없는 것으로 2일(현지시간) 마감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들 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78세)와 바이든(81세)은 모두 등록 유권자의 40%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론 이후 바이든이 지지 기반을 잃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선거일은 11월5일이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민주당 인사들 중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만이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를 50% 대 39%로 앞서며 바이든보다 나은 성적을 보였다. 그러나 미셸 오바마는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조사에 참여한 민주당 지지자중 약 32%는 토론 내내 말을 더듬고 수많은 허위 주장을 포함한 트럼프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토론 이후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바이든의 출마에 의구심을 품어 왔다.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던 1월에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49%가 바이든이 2024년에 다시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바이든은 경선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바이든이 불출마할 경우, 대체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들은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와 맞붙었을 때 바이든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42% 대 43%로 1%p 차이로 트럼프에 뒤처졌는데, 이는 여론조사 오차범위인 3.5%p 이내로 해리스가 통계적으로 바이든 만큼 강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의 81%가 해리스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어, 바이든의 78%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중 59%는 바이든이 정부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답했는데, 이는 1월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다.

많은 관측통이 향후 선거에서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민주당의 떠오르는 스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와의 가상 대결에서 39% 대 42%로 약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 전역의 성인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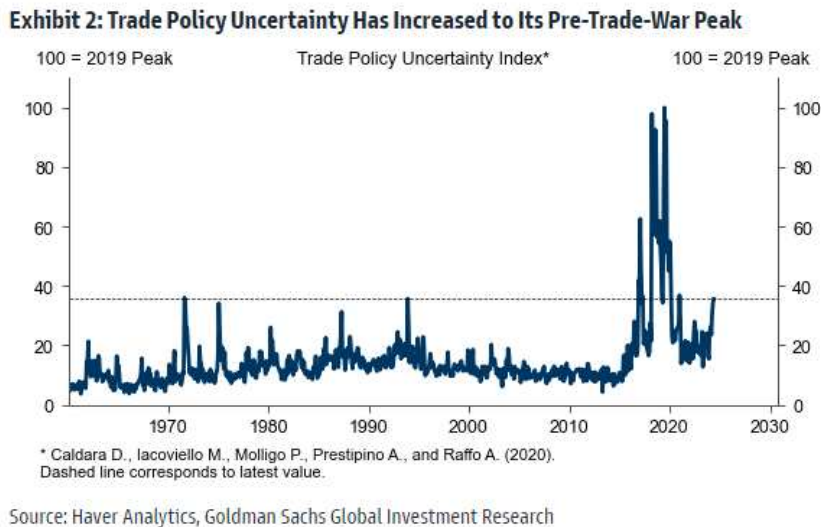
• (칼럼) - 미중 무역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달러

이 칼럼은 제레미 맥기버 칼럼리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니 않을 수 있습니다.
올랜도, 7월1일 (로이터) -
서방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에서 유일한 '승자'는 아마도 미국 달러가 될 것이다.

글로벌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중국 간의 충돌이 극에 달했던 2018~2019년 이후 가장 높다. 아직 그 정점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큰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그에 따른 보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유럽이 관세 대열에 합류할 경우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의 증가와 국경 간 무역의 위축은 모든 곳에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지만, 세계 경제 및 통화 초강대국인 미국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미국 경제의 특성, 미국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글로벌 중요성, 국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편재성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고 미국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거나 없앨 수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성장은 미국보다 더 취약할 것이다.

요컨대,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없는 다른 통화에서 고통이 더 심각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환율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 세 배의 타격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무역 불확실성에 대한 미국과 유럽 기업의 논평, 관세 발표에 따른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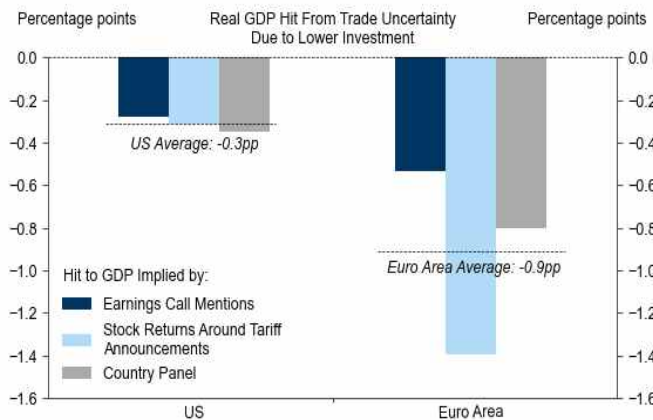
수익률, 국가 간 투자 패턴이라는 세 가지 렌즈를 통해 2018-2019 무역전쟁과 그 이후를 분석하여 미국과 유로존 성장에 대한 위험을 정량화하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2018~2019년 수준으로 높아지면 미국 GDP 성장률이 10분의 3 퍼센트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로존 성장률에 대한 타격은 3배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미 올해 0.8%, 내년 1.5%로 미국보다 훨씬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로존의 경우 그것은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따라온다면 그로 인해 유로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골드만 이코노미스트들은 "무역 정책 불확실성의 추가 확대는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글로벌 성장 전망에 의미 있는 하방 위험을 초래하며, 수출이 GDP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hibit 10: An Increase in Trade Uncertainty Could Lower GDP Growth by 0.3pp in the US and 0.9pp in the Euro Area



Source: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

◆ 상대적으로 적은 수출 비중

미국 경제는 유럽이나 중국보다 훨씬 덜 개방적이기 때문에 무역 중단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GDP의 11.8%를 차지한 반면, 중국은 20.7%를 차지했다. 유로스타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유로존의 상품 수출은 GDP의 20%에 달했다.

수년 동안 지속되고 악화되는 무역 적자는 미국이 그 격차를 메우고 달러 하락을 막기 위해 막대한 양의 외국 자본을 흡수해야 했기 때문에 달러의 주요 하락 요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작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GDP의 2.8%로 전년도보다 훨씬 적었고 2000년대 중반의 절반 수준이었다. 온쇼어링, 에너지 자급자족, 국내 제조업 부흥을 위한 노력은 모두 무역 적자가 예전처럼 달러화를 끌어내리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수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관세 인상이 있기 전의 이야기이다.

◆ 유로 달러 패러티

중국의 국내 경제 문제와 지정학적 입장은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경계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이 1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급감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 증시는 2023년 부진을 보인데 이어 올해도 겨우 플러스 영역에 머물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달러 대비 7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위안화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유럽 주식과 유로화는 최근 유럽연합이 중국으로부터의 특정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헤드라인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현재 유로존과 중국 간의 긴밀한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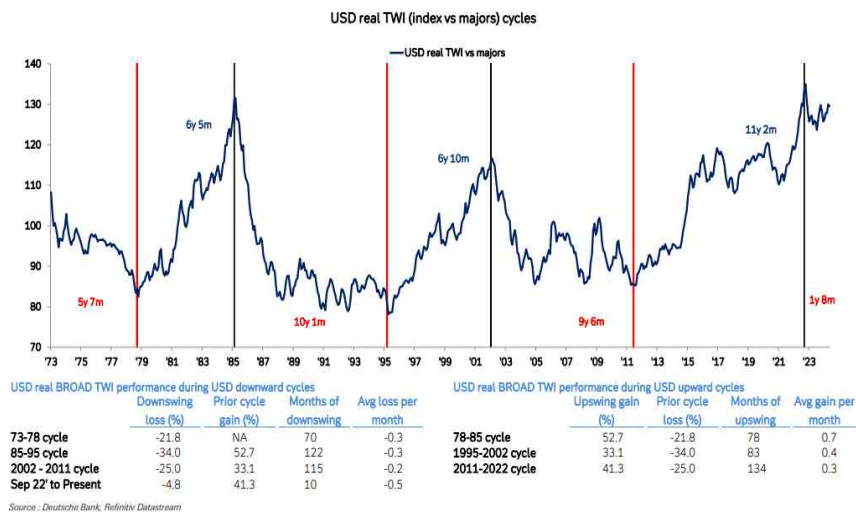
유로존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무역 가중치 유로화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달러화에 버금간다. 중국과 유럽 간의 무역 긴장은 유로화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리고 유로화는 달러 지수에서 6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의 운명과 달러화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강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도이체뱅크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와 내년까지 달러가 "더 오래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경기 사이클이 길어지면서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11월에 누가 백악관에 당선되든 무역에 대해 호전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달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유로화는 다시 패러티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Figure 3: Big USD TWI Cycle. Like no other cycle.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